

나주 10개 초·중학교 통·폐합 된다

교육부의 적정 규모화학교 집중 육성 방침에 따라 나주지역 10여개 초·중학교가 인근 학교로 통·폐합된다. 나주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10여개 초·중학교가 학생수 감소로 복식수업이 실시되는 등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나주교육청은 교육부의 학교 통·폐합권장 기준에 따라 학생수가 60명 이하인 학교의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 인근 학교와 통·폐합을 추진키로 했다. 나주교육청은 1차로 내년부터 금천 동초등학교와 산포 신도분교를 인근 학교와 통·폐합하는 방안을 확정

학생수 60명 이하 대상 주민 여론 수렴
내년 금천 동초등·산포 신도분교 확정
2010년부터 통·폐합 정부지원금 중단

했다. 내년 학생수가 28명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천 동초등학교의 경우 금천 초등학교와 통합하고 이에따른 지원 예산 10억원을 배정할 계획이 다. 학생수가 7명인 산포 신도분교도 분교에 편입해 운영하는 방법으로 3억원이 지원된다. 이밖에 나주북초를 비롯해 세지북 초, 양산초 등 초등학교 6곳을 비롯해 공산중과 문평·반남중 등 중학교 4곳

도 통·폐합 대상학교로 분류됐다. 나주교육청 관계자는 "2010년 이후에는 통·폐합에 따른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만큼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통·폐합에 따른 지원 예산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재투자해 교육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학부모를 비롯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찬반 투표를 거쳐 추진되며 통·폐합되는 학교 학생의 통학 비용은 교육청이 자체 재원으로 지원한다. /나주=최승렬기자 srchoi@



지리산 노고단 원추리 꽃 '활짝' 지리산 노고단 정상에 노란 원추리꽃이 활짝 피 탐방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최근 성삼재에서 노고단에 이르는 탐방로를 자연 경관과 어울리는 휴길로 조성했다. 노고단 정상탐방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능하다. /연협뉴스

탄력 받은 무안군 건설 사업

무안군의 적법한 행정절차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지역주민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패소함에 따라 관련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고법 제 1행정부는 지난달 17일 사찰 신축과 관련, 일로읍 지장리 주민들이 무안군을 상대로 제기했던 행정소송에 대해서 각하결정을 내렸다. 일로읍 지장리 주민들은 지난해 7월 산립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건축허가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주민피해를 입증한 만한 증거가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그뒤에도 일부 주민들이 사찰 신축부지 진입로를 점거하는 등 마찰을 빚어왔으며 특히 사찰 인근에 소재해 있는 A사 측이 산사태위험과

사찰 신축·골프장 건설 등 지역주민 항소심 잇단 패소

도로혼잡 등의 이유로 들어 항소했으나 재판부가 또 다시 각하 결정을 내려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31일 광주고법 제 1행정부는 무안군 정계면 소재 태봉 클럽빌 골프장 설치인가를 놓고 지역주민들이 무안군을 상대로 낸 '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골프장 인가처분은 적법하다"며 무안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안군이

인가처분을 하는데 있어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치는 등 관련 법 규정을 지켜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고, 주민들이 골프장 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지만 시공사 측이 충분한 대책을 세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경제적 이익보다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와 자연환경 파괴로 생기는 손실이 더 크다"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로써 7억원의 마을 발전기금 등을 제시한 재판부의 화의권고도 거부한 채 군청입구에서 1인 시위 등을 벌여왔던 주민들은 법정 소송비용까지 떠안게 됐다. /무안=대성수기자 dss@ /동부취재본부=김동호기자 dhkim@

동편제 판소리 체험장 구례서 새롭게 문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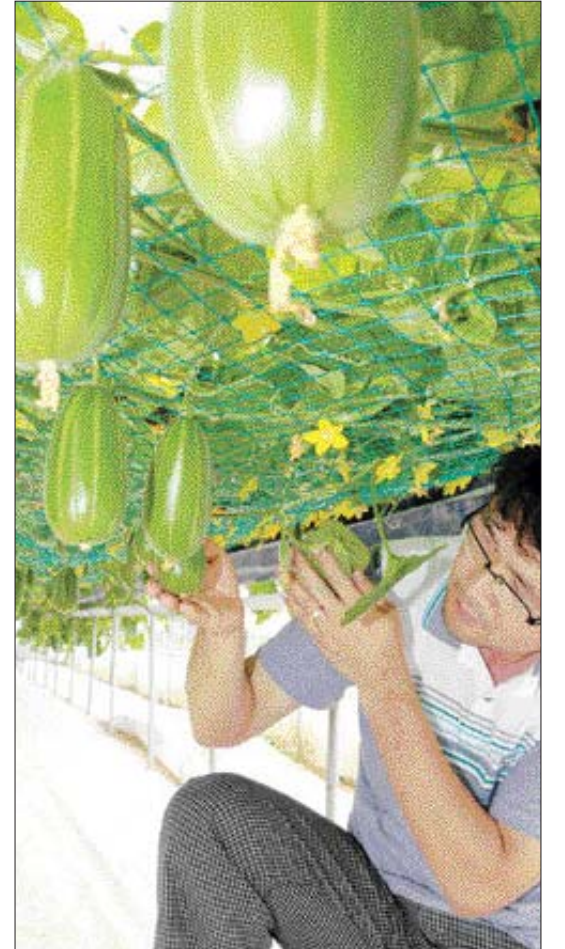
국악 대중화를 위한 구례 '동편제 판소리체험장'이 지난 1일 새롭게 문을 열었다. 구례군은 지난해 4월 준공된 '동편제 판소리체험장'에 박봉술 명창의 동영상과 의복, 유성준 명창 사진을 비롯해 구례 향제줄풍류 예능보유자였던 고 김무규 선생의 동영상자료 등을 추가로 설치했다. 국내 최초의 구례군 동편제 판소리 체험장은 95㎡ 규모로 전수관과 체험장 등을 갖추고 있다. 구례는 동편제의 거장 송우룡, 송만갑, 유성준, 박봉래, 박봉술 등 수많은 명창들을 배출했다. 또 중요무형문화재인 '구례 향제줄풍류' 전승지이며, 가야금 산조 서공철 명인의 고향이기도 하다. /동부취재본부=김동호기자 dhkim@

참외 '공중 재배' 성공

강진 농업기술센터 전국 최초 양액기법 개발

당도·착색 등 최고의 상품성

강진군 농업기술센터가 전국 최초로 참외 양액 재배에 성공했다. 3일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군동면 윤모(54)씨의 시설하우스(660여㎡)에서 양액방식으로 참외를 재배한 결과, 당도와 착색, 수량 등에서 최고의 상품성을 나타냈다. 윤씨는 특히 지난해 10월부터 올 5월까지 양액재배로 키운 참외를 수확한 뒤 이 양액배드 시설을 그대로 활용, 8월 말까지 참외를 생산해 내는 방식으로 '1석 2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양액재배(養液栽培)는 작물 생육에 필요한 양분을 수용액으로 만든 뒤 철재 배드에 담긴 모종에 영양분을 공급, 재배하는 방식이다. 기존 방식인 토경(土耕) 재배에 비해 노동력 절감과 병해 발생 감소, 생산량 증가 등이점이 매우 크다. 당도도 국내 최고 수준인 14~15브릭스에 이르고 착색이 매우 좋아 최상급 판정을 받고 있다. 특히 7월 이후면 사실상 출하가 끝나는 참외의 생산 주기를 한여름철까지 늘렸다는 점에서 농가의 소득 창출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 노지에서 재배되는 참외는 한여름철인 7~8월에는 잦은 병해와 착색불량, 열과(裂果) 등으로 상품성이 떨어져 재배 농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군 농기센터 관계자는 "참외 양액재배 농가 후작으로 참외를 선택할 경우 하우스 1동(660㎡)당 최소 300만~400만원의 추가 소득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액배드를 활용한 참외 재배법은 올해 농촌



3일 강진군 군동면 한 비닐하우스에서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가 양액재배로 키운 참외의 작황을 살펴보고 있다.

진흥청으로부터 연구과제로 선정돼 연구비 2억원을 지원받았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군민은 고유가에 허리 휘는데... 관광성 해외 연수라니

영암군청 공무원 11명 싱가포르·태국·홍콩 대부분 관광 위주 일정

고유가와 고물가 등으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영암군청 공무원들이 요즘이 가장 비싼 싱가포르에 '관광성 해외 연수'에 나서 예산을 과도하게 낭비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영암군청 공무원 11명은 지난달 29일부터 8월 4일까지 6박 7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태국, 홍콩 등 3개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해외연수 계획서를 통해 선진지 문화와 행정 분야의 연수를 통해 이를 군정에 접목하겠다고 연수 목적을 밝혔다. 그러나 견학 코스는 형식적인 답사에 불과한 반면 홍콩 해양 공원 및 빅

토리아 야경 감상, 홍콩 야시장과 관광 페리 탑승, 홍콩 시내 쇼핑, 파타야 티파니스 VIP석 관람, 방콕 에메랄드 사원 및 수상가옥 관광, 싱가포르 시내 관광 등 관광 위주로 일정이 짜여져 있다. 이들의 여행비용은 비수기(180만~190만원)때 보다 비싼 1인당 221만~243만원으로, 전체 비용 2천525만원에 모두 군 예산으로 처리됐다. 김모(43·영암읍)씨는 "고유가에 해외여행을 자제하고 있는 이때 공무원들이 가장 비용이 비싼 싱가포르를 이용해 홍콩, 태국, 싱가포르에서 도대체 무엇을 배워왔는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직원들의 노력을 격려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연수의 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보성군 당노교실 열어

보성군은 지난달 30일 조선대 만성질환관리사업지원단과 공동으로 미려면 복지회관에서 당노교실을 열었다. <사진> 이날 당노교실에는 주민 50여명이 참석해 혈당·혈당·간기능 검사와 개인별 식사진단, 영양 상담 등이 실시됐다. 보성군은 지난 3월부터 매주 화요일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중풍 및 치매 예방교육을 비롯해 만성질환 관리 등 8개 건강테마별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지광원기자 light64@



영산포농협 기술교육

영산포농협(조합장 박정현)이 지난달 29일 가야지소 2층 교육장에서 여름철 수확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날 교육에는 나주시청 친환경지도과 장형규 팀장이 강사로 나서 병해충 방제요령과 물 관리 등 기술교육을 실시해 참석한 150여 농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박정현 조합장은 "농산물 시장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맛과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쌀 생산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산포농협은 조합원의 소득 증대와 영농에로사향 해결을 위해 전문농지도요원을 영입하는 등 지도 판매사업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상품권 급여' 논란

담양군 직원 급여 일부 '담양사랑 상품권' 지급 직원 불만...군 '판매 고수'

담양군이 매월 직원 급여 중 일부를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담양군 공무원들에 따르면 6급 이상은 한 달에 15만원, 7급 이하는 10만원을 급여에서 공제한 뒤 이 돈들이 주로 이용하는 탓에 '공무원 상품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군은 "상품권 유통이 정착되면서 조차 불만도 많이 사라졌다"며 현 판매방식을 고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일반인 사용 비중이 적기는 하지만 광주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담양에서 주유·식사 등에 상품권을 활용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담양=정필수기자 bungy@

급여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받고 나면 개인차가 없다"며 "대도시 공무원들에게 급여 중 10만원을 백화점 상품권으로 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30억원 상당이 발행되고 있는 담양군 지역사랑 상품권은 연간 26억원이 판매되고 가맹점이 938곳으로 늘어나는 등 외곽 지리를 좁아가고 있으나 공무원들이 주로 이용하는 탓에 '공무원 상품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매달 7천만원 가량의 상품권이 판매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들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취지도 좋고, 상품권도 현금과 같이 사용할 수 있어 유용하지만 매번

세 일 글

"물 축제·우드랜드 성공 추진"

임태영 장흥부군수



"희망의 정남진을 건설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임태영(56) 신임 장흥 부군수는 "물 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산업단지 조성, 우드랜드·야토퍼치리센터 조성 등 역점 사업이 빠르게 진척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광주 출신인 임 부군수는 조선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78년 전남도에서 공직을 시작해 전남도 개발건축과장, 행복마을과장, 고흥군 부군수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강영순(50)씨와 사이에 1녀가 있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교정 교화 통한 재사회화 최선"

김상두 목포교도소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정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김상두(52) 목포교도소장은 "교정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를 위해 조직 구성원 상호간 신뢰를 바탕으로 화합과 단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북 완주 출신인 김 소장은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을 졸업했

으며 지난 87년 7월 교위로 임용돼 서울지방교정청 보안관리과장, 안양교도소 부소장 등을 지냈다. 가족으로는 부인 진영희(50)씨와 1남 1녀가 있다. 취미는 등산. /목포=이상규기자 ish@